인문연구 제8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7, No. 6, pp.143~164
http://dx.doi.org/10.21211/JHUM.87.6

‘내’가 ‘너’라고 부를 때 데이지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경화*

〈차 례〉

1. 들어가며
2. 마르틴 부버
3. 차가운 열정
4.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5. 나오며

【국문초록】

마르틴 부버는 ‘나—너’ 그리고 ‘나—그것’의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된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부버에 따르면 ‘나—그것’은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지식이나 필요 혹은 소유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관계다. 이에 반해, ‘나—너’는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의식 안에서 대상화하지 않고 어떤 매개도 없이 상대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관계다. 부버는 ‘나—너’가 인격적인 관계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은 인격

* 단국대학교 영어과 부교수

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헨리 제임스의 『데이지 밀러』에서 윈터본은 부버가 말하는 '나—그것'을 구현하는 인물로서 그는 데이지를 인격체로서 대하기보다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는 데이지를 처음 본 순간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이내 냉철한 이성으로 그녀를 분석한다. 작품 전반을 통해 윈터본은 데이지를 줄곧 관찰하고 연구한다. 그러므로 그의 시선은 데이지를 살아 숨 쉬는 인간에서 분류되고 분석되는 데이터로 바꿔놓는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좋아하지만 그가 느끼는 우월감이 설레는 감정을 짓누르는 것으로 보인다. 윈터본이 느끼는 우월감은 사회진화론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나와 너』에 나타난 부버의 사유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지 밀러』를 분석한다.

주제어: 마르틴 부버, '나—너,' '나—그것,' 헨리 제임스, 『데이지 밀러』

1.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인격체로서 이해받고 있는가?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비며 함께 앉은 옆자리의 승객, 혹은 처음 들른 가게에서 말을 주고받은 직원, 현대인은 이런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이해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가 기대되는 관계, 즉 직장 동료나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대인은 자신이 인격체로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직장, 모임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 구분의 대상은 인격체가 될 수 없다. 인격체는 내[1]가

1) 본 논문에서 '나,' '너' 그리고 '그것'의 표기에 있어 일일이 따옴표를 사용

상대를 또 다른 나로서 바라볼 때 나에게 그가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에 상대를 편입시키는 이기적인 인간관계에서 상대는 인격체가 아닌 수단적 존재가 되며, 따라서 수단적 존재에 대해 나는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필립 로스코(Philip Roscoe)의 설명은 현대사회의 이런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로스코는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언어와 각종 장치들에 내장되어 우리를 경제적 주체로 만들어 내며, 우리는 경제학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놉티콘에 죄수로 갇혀 버린다. 경제 분석의 기초에 깔려있는 여러 가정과 전제들은 […] 만사만물을 다 설명해버리는 거대 통일장 이론 같은 것이 된다"(3040-305)라고 말한다.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제 분야를 넘어서 문화, 습관 그리고 언어에까지 침투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학의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거대한 계산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연필을 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알아낸다.

사막의 환경은 그곳의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돋게 만든다. 현대사회의 녹록치 않은 환경, 말하자면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경제적 불황 그리고 탈락의 공포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직장문화 등은 사람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변하게 만든다. 그러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만큼은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쉽게 '~것'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사람은 너무나 복잡하고 섬세한 존재다. 지난한 삶을 견디는 동안 다져진 성품과 섬세한 감정의 실로 짜여진 사람을 누가 숫자로 값

하면 보기에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의 경우 따옴표를 생략하였음.

을 매길 수 있단 말인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일찍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통찰력을 보여준다. 『한 연구』(A Study)라는 부제가 붙은 『데이지 밀러』(*Daisy Miller*)에서 윈터본(Winterbourne)은 데이지를 인격체로서 대하기보다 연구의 대상으로 대한다. 파란 하늘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스위스의 마을 브베(Vevey)에서 데이지는 윈터본을 만난다. 그녀는 호수의 낭만에 젖어, 그리고 처음 만난 자신을 중세시대의 성에 데려가겠다는 그의 열정에 이끌려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나 윈터본은 데이지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그녀에 대해 마음의 거리를 유지한다.

윈터본은 첫눈에 데이지의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다. 하지만 이내 그는 데이지가 유럽 여자들과 다르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한다. 그러자 그는 데이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작품 전반을 통해 윈터본은 데이지를 줄곧 관찰하고 연구한다. 그의 시선은 데이지를 살아 숨 쉬는 인간에서 분류되고 분석되는 데이터로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로버트 와이즈버크(Robert Weisbuch)는 "서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임스는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의 가정교사와 『데이지 밀러』의 윈터본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보다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악과 더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218)라고 지적한다. 이 작품에서 윈터본이 데이지를 대하는 태도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가 말하는 '나—그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부버의 『나와 너』(*I and Thou*)에 나타난 부버의 사유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데이지 밀러』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문들이 『데이지 밀러』의 윈터본과 관련하여 그의 차별적 태도나 관찰자적 관점을 주로 분석한 데 반해, 본 논문은 윈터본이 데이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것'의 문

제점을 논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버의 논의를 작품분석에 도입함으로써 『데이지 밀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2. 마르틴 부버

부버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란 유대인 철학자다. 부버는 유대적 배경과 추상적인 화법으로 인해 종종 신비주의 사상가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초기에 신비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가 이후에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벗고 현실적 성격을 띠게 된다(Friedmann 27). 부버의 사상은 『나와 너』 각 속한 후기 철학에 의해 대표되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실존과 윤리와 같은 철학적 주제들을 실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버에 따르면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로 대하고 그와 동등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세계를 이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격체가 될 수 있다. 부버의 이와 같은 사유는 투박한 나무망치의 느낌처럼 세련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힘이 있다.

부버는 사람이 세계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나—그것' 그리고 '나—너,' 이 두 가지 태도로 설명한다. 부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만 인간을 논할 수 있다고 본다. 부버에 따르면 '나—그것'과 '나—너'는 인간이 '나' 이외의 것, 즉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근원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라고 말할 때 그는 '나—그것' 또는 '나—너' 안에 존재하며 이에 따라 그의 존재양식이 결정된다.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중적이므로 이에 따라 사람에게 세계는 이중적이다.

사람이 말하는 근원어가 이중적이므로 이에 따라 그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근원어는 홀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고 어울려 있는 말이다.

근원어의 하나는 복합어 '나—너'이다.

근원어의 또 하나는 복합어 '나—그것'인데, 이 경우에 '그것'을 '그이'나 '그녀'로 바꿔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나' 또한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근원어 '나—너'의 '나'는 근원어 '나—그것'의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To man the world is twofold, in accordance with his twofold attitude.

The attitude of man is twofold, in accordance with the twofold nature of the primary words which he speaks.

The primary words are not isolated words, but combined words.

The one primary word is the combination *I—Thou.*

The other primary word is the combination I—It; wherein, without a change in the primary word, one of the words *He* and *She* can replace It.

Hence the *I* of man is also twofold.

For the *I* of the primary word *I—Thou* is a different *I* from that of the primary word *I—It; (I and Thou 3)*

'나—그것'은 컴퍼스의 중심다리가 중앙에 고정되어 있듯 내가 확고한 중심이 되어 세계를 경험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통해 스스로를 파악한다는 절대적 자기 확신 위에서"(페리 23-24) 주체성을 수립한다. '나—그것'에서는 주체성을 중심으로 내가 중심축을 형성한다. 그리고 컴퍼스에서 중심다리가 축이 되어 원을 그리고 바깥다리는 중심다리가 정한 경

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세계를 내 의식의 범주 안에서 경험한다. 나는 세계를 내 의식의 범주 안에서 그 무엇, 그곳, 그 여자, 그 남자로 경험하여 내 의식에 일정한 내용을 지닌 '그것'으로 저장한다. 이때 나는 일방적 행위의 주체로서 대상과 분리된 관점에 서 있다.

나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여러 개의 시선으로 나무를 바라본다. 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나무에서 땔감을 구하는 사용자의 시선으로, 나무를 분석하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시선으로, 때로는 지친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는 시선으로 사람은 나무를 바라본다. 어떤 경우든 사람은 나무를 대상으로 경험하며 자신이 경험한대로 나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나무는 보는 사람이 구축하는 세계의 일부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이 문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딸 부잣집 베넷(Bennet) 가의 둘째인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지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이다. 그러나 지적 자부심과 지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세계가 그녀에게 편견으로 작용해서 그녀는 다아시(Darcy)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엘리자베스는 무도회에서 다아시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는다. 그녀는 무도회에서 잠시 경험했을 뿐인 다아시에 대해 "거만하고 말수가 적고 까다로워서 그의 매너는 비록 교양은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가 없었다. […] 다아시는 항상 남을 불쾌하게 만들었다"(Austen 9)라고 판단을 내린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자신의 세계에 가두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아시가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엘리자베스는 그의 진실한 면모를 보지 못한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편견의 막을 찢을 때 비로소 둘의 관계는 발전한다.

‘나—그것’의 끝에는 내가 있다. 알고 싶은 나, 정복하고 싶은 나, 소유하고 싶은 내가 무엇으로도 환원 불가능한 너를 나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반면 ‘나—너’의 끝에는 네가 서 있다. 그 길의 끝에서 나를 향해 걸어올지도 모르는 너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만남은 나와 너 사이에서 선물처럼 주어진다. 따라서 부버는 “내가 너와 만나게 되는 것은 찾아서 발견되지 않으며 오직 은혜를 통해 이뤄진다. […] 하지만 나는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는 택함을 받는 것과 택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피동과 능동이 하나다. 전존재를 건 모든 행위가 그런 것처럼”(*I and Thou* 11)이라고 말한다. 나는 너를 지성, 감성, 성격 그리고 영혼을 지닌 전존재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이 만남으로 인해 내가 변화할 때 나는 전존재를 지닌 인격체로서 실존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인간은 반딧불처럼 혼자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부싯돌처럼 서로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빛을 내는 존재다.

부버는 ‘나—너’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아지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외면하고서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하는 생활 역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길 위에서 만나는 존재들을 대하며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찾아와 스스로를 밝힐 것이다. 이때 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나—너’는 관계를 강조한다. 내가 상대를 나의 지식이나 필요 혹은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어떤 매개도 없이 상대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할 때 맺게 되는 관계가 ‘나—너’다. 다른 인격체와의 동등한 관계를 통해 나도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인격체를 맞아들임으로써 나는 알을 깨고 내 세계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너'는 현실 참여적이며 인격적이다.

『나와 너』에 의해 대표되는 부버의 사유는 관계와 만남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들을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국한되지 않는다. 부버의 사유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만남을 통해 그가 다른 인격체와 맺는 관계에 의해서 그도 인격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데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부버의 사유가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 우정, 존중, 인정 그리고 우애가 죽은 나무에 새싹이 움트듯 현대사회에 되살아날 것이다.

3. 차가운 열정

사람은 단순히 '그것'으로 환원되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지난한 삶의 자취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안에 무한을 갈망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을 담고 있다. 부버에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너'라고 부르는 행위는 내가 함부로 '너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띤다. 『데이지 밀러』에서 윈터본은 이런 '나—너'와 대조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는 데이지를 자신의 머릿속에 가두고서 바라본다. 따라서 데이지는 윈터본에 의해 비인격적 존재로서 경험되고 탐구되고 분류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브베에 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한 호텔이 있다. 숙모를 방문하기 위해 이 호텔을 찾은 27살의 젊은 남자 윈터본은 이곳에서 데이지를 만난다. 윈터본은 호텔 정원에서 미

국인 소년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정원을 가로질러 그들 쪽으로 걸어오는 소년의 누나를 본다. 그녀는 주변의 화단과 수려한 경관이 무색해질 만큼 아름답다. 윈터본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설 듯이 의자에서 몸을 펴면서 '그들은[미국 처녀들은] 얼마나 예쁜가!'라고 생각했다"(6).[2] 윈터본이 데이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그녀는 얼마나 예쁜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이하다.

밀리센트 벨(Millicent Bell)은 윈터본이 특정한 범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59). 무엇을 범주화해서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취급할 때 혹은 연구자가 데이터를 다룰 때 가지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범주화하는 윈터본의 태도를 통해 그가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윈터본은 데이지의 얼굴을 살펴볼 때도 예상 밖의 태도를 나타낸다. 데이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윈터본은 그녀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본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 없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정이 풍부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리고 매우 섬세했지만, 섬세한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정점이 부족한 얼굴이라고—매우 관대하게 말해서—윈터본은 속으로 생각했다"(8). 윈터본은 데이지의 얼굴을 분석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는 황홀한 감정에 도취되어 냉철함을 잃기 마련이다. 하지만 윈터본은 데이지에게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그의 시선은 냉철함으로 무장하고 있다. 날카로운 그의 시선 아래에서 데이지의 미(美)는 해부된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연구 대상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데이지가 자신은 사교계를 매우 좋아하며 사교계에서 만나 친구

2) Henry James, *Daisy Miller: A Study* (London: Penguin, 2007) 이후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가 된 남자들도 많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는 이를 말 그대로 그녀가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을 지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윈터본은 유럽 여성들과 다르게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자신의 방종함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이 미국 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윈터본은 "데이지 밀러 양에게 적용되는 공식[the formula]"(12)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윈터본은 데이지가 연애를 즐기는 요부라고 말하기에는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렇다고 데이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라고 말하기에는 남자들과의 교제 경험이 많다고 그는 생각한다. 따라서 윈터본은 어느 범주에 그녀를 넣어야 할지 몰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 마침내 그녀가 미국에서 온 바람둥이일 거라는 결론에 이르자 그는 감사한 마음조차 들 정도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범주를 사용한다. 그의 범주에 따라 데이지는 유럽 여성과 다른 미국 여성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온 바람둥이로 범주화된다.

윈터본이 데이지를 범주화하는 태도는 작품 전반을 통해 드러난다. 윈터본과 데이지는 함께 시옹 성(the Castle of Chillon)에 간다. 시옹 성으로 가는 배 위에서 데이지는 첫 번째 데이트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말로 진정시키려는 듯 쉴 새 없이 떠든다. 반면 윈터본은 이런 데이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며 생각에 잠긴다.

> 그는 그녀가 천박하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가 단지 그녀의 천박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대화는 주로 형이상학자들이 객관적인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주관적으로 바뀌었다.

> He had assented to the idea that she was 'common'; but was she so, after all, or was he simply getting used to her commonness? Her

> conversation was chiefly of what metaphysicians term the objective cast; but every now and then it took a subjective turn. (28 강조 저자)

윈터본은 "곧 데이지의 '천박함'을 분석해서 범주화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생각을 통해 데이지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드러난다"(Wood 39-40). 윈터본의 사고 속에서 데이지는 분석되고 분류되어 연구 대상으로 접근된다.

무심한 눈으로 볼 때 들판의 꽃들은 저마다의 생명을 지닌 이름 모를 들꽃이다. 하지만 범주를 사용해서 분류할 때 들판의 꽃들은 역사를 지닌 지식이, 쓸모를 지닌 재료가 된다. 이와 같이 범주를 사용하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보다 질서정연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지에 대한 윈터본의 태도는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 범주에 데이지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윈터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과학의 발전이 몰고 온 더운 열기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인들에게 인류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다윈(Darwin)의 진화론이 종(species)이 진화하는 것처럼 인간사회도 진화한다는 사회진화론을 낳게 된 것은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진화론은 특히 "모든 문화의 발전에는 분명한 법칙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문화의 발전은 예외 없이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전개되어 서구 유럽사회의 제도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고 보았다"(Eggan 122). 유럽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지식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제임스는 진화

론적 사고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제임스는 다윈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며 인류학과 고생물학 분야의 최신이론을 싣는 『네이션』(*The Nation*) 지와 『애틀랜틱』(*The Atlantic*) 지에는 제임스의 문학평론 등이 함께 실렸으며 이외에도 제임스의 소설이 시대의 문화적 산물임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실들이 있다(Scheiber 75-76). 이런 관점에서 『데이지 밀러』에 끼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윈터본을 포함한 유럽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유럽의 선진문명을 동경해서 이곳으로 건너와 유럽사회에 동화된 미국의 부자들이다. 이들은 앞선 유럽인의 관점에서 뒤떨어지고 미개한 미국인 관광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윈터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앤드류 J. 샤이버(Andrew J. Scheib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작품에서 묘사되는] 원시적인 미국인들과 세련된 유럽인들 (혹은 윈터본처럼 유럽인에 가까운 미국인들) 간의 갈등과 오해들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진화론적 모델에 추가 목록과 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의 상당부분은 [유럽]문화에 내재화된 이와 같은 서술방식에서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윈터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유럽인 혹은 유럽인에 가까운 상류사회 남성으로서, 그는 자신이 밀러네 가족과 같은 미국인 관광객들보다 문화적으로 더욱 앞섰다고 혹은 진화되었다고 마음껏 생각해도 괜찮다고 느낀다. (77)

> The conflicts—and misunderstandings—between "primitive" Americans and "sophisticated" Europeans (or Europeanized Americans like Winterbourne) index and interrogate this evolutionary model of cultural variation. Winterbourne's efforts at maintaining his own privileged position in this internalized narrative of culture. As a European, or Europeanised, male of the "educated" class, he feels free

to conceive of himself as culturally more "advanced" or "evolved" than Americans of the tourist class such as the Millers. (77)

윈터본이 그의 숙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문화의 단계'를 언급하는 장면은 그가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윈터본은 데이지가 조바넬리(Giovanelli)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데이지와 그녀의 엄마는 뭐랄까, 그 문화의 단계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요. 백작이나 후작을 잡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 말이에요"(54)라고 말한다. 데이지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돈 많은 여자를 노리는 사기꾼 같은 남자와 사귀는 것이 그녀가 문화의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윈터본의 말은, 문화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사회진화론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윈터본이 데이지를 '그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윈터본은 데이지를 처음 본 순간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우월감의 무게가 사랑의 감정을 짓누르자 그는 데이지를 문명사회에 들어온 야만과 같이 느끼게 된다. 핀치오 공원(the Pincio Gardens)에서 윈터본이 워커 부인(Mrs. Walker)에게 "'그 불쌍한 여자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그녀가 매우 미개하다는 것뿐이에요.' […] '저는 그녀를 너무 좋아해요'"(45)라고 하는 말은 데이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미개한 '그것'이 주는 공포에 갇혀서 혹은 마음의 거리를 즐기면서 그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

4.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데이지는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느껴지는 유럽 상류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예를 들면, 자유, 정직, 신뢰 등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데이지는 유럽 상류사회에서 요구되는 우아함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타고난 우아함"(Wood 37)을 지닌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데이지는 유럽의 전제정치에 반항한 보니바르(Bonivard)에 의해 상징된다. 데이지와 윈터본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시옹 성의 그림 같은 탑들이 바라다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로 둘러싸인 시옹 성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중세의 성이다. 윈터본을 처음 만난 날 밤 데이지는 별빛에 물들어 더욱 낭만적으로 빛나는 시옹 성을 당장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러나 2일 후 막상 데이지와 윈터본이 이곳에 왔을 때 성은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시옹 성은 유럽의 전제정치로 얼룩진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음울한 분위기가 감돈다. 16세기에 보니바르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영주와 주교의 절대 권력에 반항했다. 그러자 영주는 보니바르를 잡아 시옹 성의 지하 감옥에 가두고 6년간 그를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놓았다.

「시옹 성의 죄수」("The Prisoner of Chillon")에서 로드 바이런(Lord Byron)은 보니바르를 찬양한다. 바이런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이여! 자유여, 너는 지하 감옥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109)라며 자유를 염원한 보니바르의 영혼은 결코 속박할 수 없다고 노래한다. 시옹 성은 데이지가 죽기 전에 시옹 성의 추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지 윈터본에게 물어봐 달라고 유언처럼 남길 정도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띤 장소다. 이와 함께 보

니바르의 상징성은 데이지가 보니바르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영혼을 지녔음을 제시한다.

데이지는 로마에서 조바넬리라는 이탈리아인 남성과 친해진다. 그리고 그에게 핀치오 공원을 함께 산책하겠다고 약속한다. 공공장소에서 젊은 남녀가 만나는 것은 유럽 상류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주위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한다. 그러나 데이지는 10일 전에 한 약속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의 기대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49)면서 약속장소로 나간다.

데이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유럽 상류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보다 10일 전에 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더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공원에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이지는 양심의 거울에 비춰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른다. 데이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조바넬리는 그녀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상냥하고 순수한 사람(6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윈터본은 데이지의 진실한 면모를 보지 못한다.

윈터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데이지는 솔직한 감정을 바탕으로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시옹 성을 둘러보며 데이지는 "윈터본에게 그에 관한 많은 것들, 즉 그의 가족,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취향, 습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느닷없이 질문했으며 또한 이에 대응하는 자신에 관한 신상을 들려주었다. 자신의 취향, 습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밀러 양은 가장 명확하고 실로 가장 호의적인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있었다"(29). 시옹 성의 유물들은 그녀에게 윈터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데이지의 관심이 온통 윈터본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그가 들려주는 "보니바르의 역사는 한귀로 들어왔다 한귀로 흘러 나갔음이 분명했다"(29).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데이지는 윈터본과 자신이 서로를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고 느낀다. 서로 가까워지고 '나와 너'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후 시옹 성에서의 시간은 그녀가 가슴에 품고 저세상으로 가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소중한 순간이 된다. 하지만 데이트가 무르익어갈 무렵 윈터본은 느닷없이 다음날 이곳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 말 한마디에 데이지는 일순간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다. 그녀는 로마에서의 재회를 약속받음으로써 겨우 화를 진정시킨다.

로마에서 재회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다. 워커 부인의 파티에서 윈터본을 만난 데이지는 그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 속마음을 내비친다.

"윈터본 씨에게는 저에게 차를 권할 생각이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나 봐요," 그녀가 약간 새침하게 말했다.

"저는 충고를 권해왔지요," 윈터본이 대답했다.

"저는 연한 차를 더 좋아한다구요!" 데이지가 이렇게 외치고는 화려한 조바넬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다.

"It has never occurred to Mr. Winterbourne to offer me any tea," she said with her little tormenting manner.

"I have offered you adivce," Winterbourne rejoined.

"I prefer weak tea!" cried Daisy, and she went off with the brilliant Giovanelli. (51)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에는 그와 담소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 이상이 담겨있을 수 있다.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바람이 담겨있을 수 있다. 데이지는 윈터본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다.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는 '나—너'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부버는 진정한 대화에 대해 "말에 의해서든 묵시적이든 간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의도에 귀 기울이는"(*Between Man & Man* 19)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가 상대를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뤄진다. 이때 그는 인격체로 나에게 인식되고 그와의 대화는 나의 고립적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Cohen 83). 위 장면에서 윈터본은 데이지에게 '저는 차 대신 충고를 권해왔지요'라고 응수한다. 이는 대화를 선호하는 데이지와 대조적으로 그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을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윈터본은 결국 데이지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벗어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다. 그는 콜로세움(the Colosseum)의 벽만큼 높은 장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늦은 밤 윈터본은 어스름한 달빛에 비친 콜로세움을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춘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이곳에서 조바넬리와 함께 있는 데이지를 목격한다. 순간 윈터본은 전광석화와 같이 진리가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는 데이지가 "얼마나 영리한 창녀 같은 여자이며, 얼마나 똑똑하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연기했는가!"(60)라고 생각한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의 믿음은 냉담한 태도로 이어진다.

윈터본은 데이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 콜로세움을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이 조바넬리와 약혼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느냐고 윈터본에게 묻는다. 그녀는 이 말을 부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윈터본은 "나는 당신이 약혼했든 안 했든 나에게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믿습니다"(61)라고 대답한다. 그의 대답은 데이지를 "살인하

는 결과"(Kirk 277)를 낳는다. 날이 선 윈터본의 태도에 마음이 베인 데이지는 슬픈 현실이 보이지 않게 차라리 눈을 감는다. 그녀는 삶의 의지를 포기한 채 로마의 풍토병을 앓다가 그녀의 짧은 생에 작별을 고한다.

5. 나오며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인간에게 조직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사람들은 자연의 사물들을 실험실에서 자원으로 거듭나야 할 연구의 대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이와 같은 사물로 인식한다. '나—그것'은 사물의 세계다. 나는 나의 필요와 욕망에 매개되어 상대를 사물로 바라본다. 상대를 사물로 바라보는 태도는 인격적인 사귐을 결여한다. 인격적인 사귐은 상대를 우주와 같이 무한한 전체로 받아들일 때 이뤄진다. 부버의 『나와 너』는 현대인들이 내 안의 인간적인 요소를 죽이고 물질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의 매트릭스에 갇혀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고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그 사유의 힘이 발휘된다.

정겨운 말 한마디, 정겨운 한 번의 미소가 사람에게 살고자하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 『데이지 밀러』에서 데이지의 죽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윈터본을 좋아하는 데이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에 관해 모두 알기를 원하며 그 또한 자신에 대해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윈터본은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우월감에 매개되어 그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데이지는 한발 다가가면 한발 물러서는 안타까운 사랑에 애를 태우다 낯선 땅 유럽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윈터본이 '너'라고 불러주면 달려가서 추운 겨울의 골짜기를 녹이고 아름

다운 봄을 활짝 피우려고 했는데, 그 정다운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그녀는 무덤가에 꽃 한 송이만 외롭게 피워놓고 세상을 떠난다.

참고문헌

뤽 페리 지음. 방미경 옮김. 『미학적 인간』. 고려원, 1994.

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차가운 계산기: 경제학이 만드는 디스토피아』. 열린책들, 2017.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Books, 2009.

Bell, Millicent. *Meaning in Henry James.* Cambridge: Harvard UP, 1991.

Buber, Martin. *Between Man & Man.* Trans. Ronald Gregor Smith. Edinburgh: Morrison and Gibb, 1957.

_____. *I And Thou.* Trans. Ronald Gregor Smith. Edinburgh: Morrison and Gibb, 1942.

Byron, Lord. *Byron's Childe Harold Cantos III and IV: The Prisoner of Chillon and Other Poems.* Ed. Hardin Craig.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0.

Cohen, Adir.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Martin Buber.* New Jersey: Associated UP, 1983.

Eggan, Fred. "One Hundred Years of Ethnology and Social Anthropology." *One Hundred Years of Anthropology.* Ed. J. O. Brew. Cambridge: Harvard UP, 1968, 119–49.

Friedmann, Maurice. *Martin Buber, The Life of Dialogue.* New York: Harper Torch, 1960.

James, Henry. *Daisy Miller: A Study.* London: Penguin, 2007.

Kirk, Carey H. "*Daisy Miller:* The Reader's Choice." *Studies in Short Fiction.* 17.3 (1980), 275–83.

Scheiber, Andrew J. "Embedded Narratives of Science and Culture in James's *Daisy Miller.*" *College Literature.* 21–2 (1994), 75–88.

Weisbuch, Robert. "James and the American Sacred." *The Henry James Review.* 22.3 (2001), 217–28.

Wood, Carl. "Frederick Winterbourne, James' s Prisoner of Chillon." *Studies in the Novel.* 9.1 (1977), 33-45.

(투고일: 2019. 4. 30. 심사완료일: 2019. 6. 20. 게재확정일: 2019. 6. 20.)

소속: 단국대학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살구골현대아파트 727동 1701호
전자우편: kleebuffalo@dankook.ac.kr

[Abstract]

When 'I' Call 'You,' Daisy Blooms

Lee, Kyeong-Hwa

This essay aims to study Buber's view of *I—Thou* and *I—It* and analyze *Daisy Miller* from Buber's viewpoint. In *I* and Thou Buber argues that to man the world can be determined by the two primary words, *I—Thou* and *I—It*. *I—Thou* signifies personal relationship in which a person acts morally towards the other person. Meanwhile, *I—It* signifies impersonal relationship in which a person sees the other person as the object of knowledge, experience, or use. According to Buber when *I—Thou* or a person-to-person encounter occurs, they can go beyond their bounds and their lives can change. In *Daisy Miller* Winterbourne shows *I—It* towards Daisy. Winterbourne felt love at first sight when he saw Daisy. But he keeps his distance from her, trying to find the formula applied to her. Throughout the novel Winterbourne categorizes and studies Daisy, as if she were a thing. His attitude is in contrast with Daisy who genuinely wants to know about him and wants to have a dialogue with him. In this way, this novel reveals the problem of *I—It'* through Winterbourne.

Key words: Martin Buber, 'I—You,' 'I—It,' Henry James, *Daisy Miller*